

부처는 마음속에 있거늘 어찌하여 허송세월 하는가?

구국의 외침 역력한 해인사 흥제암

지금처럼 꽃이 만발한 봄날이었나 봅니다. 밤사이 폭우가 내려 뜰 앞에 피었던 꽃들이 모두 떨어진 것을 본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

밤과 바꾸었는데, 그 거북을 물에 다시 놓아 주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뭔가 다른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했고 열세 살 때 <맹자>를 배우다가 세속의 학문이 유한한 것임을 깨닫고 '무루학설(無漏學說)'을 배우고

안으로 불가의 공부로 뼈대를 단련하고 유학과 시문 등 밖의 공부[外典]로 근육을 다지던 스님은 홀연히 세간의 인연들을 접어 버립니다.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낸 한 시절을 참회하고, 물 같이 구름같이 지팡이를 짚고 묘향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산 대사 청허휴정

깨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인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이 바로 사명 대사의 행장을 기록한 '사명 대사 석장비(石藏碑)'입니다. 행적을 돌에 새겨 저장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옆에는 깨진 석장비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세운 신비(新碑)가 있고 다시 3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먼저 안내판을 읽어 봅니다.

이 있고 난 뒤에 부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문에서 허균은 이렇게 밝힙니다.

"스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명 스님이 중생으로 하여금 미진(迷津)인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네주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구구(區區)하게 나라를 위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어찌 나라를 침범한 악마를 죽이고 국난을 구제하는 것이 곧 불교의 한량없는 공덕을 짓는 일임을 알 수 있겠는가? 유마 거사의 무언(無言)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거늘, 어찌 요란스럽게 말로 훈도할 필요가 있으랴!"

고봉 스님(高峰 1900~1969)이 스승인 환경(幻鏡 1887~1983)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새로 세운 '합천해인사 사명대사신건비문'에 당초의 석장비가 파손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미년(癸未年 1943)에 왜의 앞잡이가 사내(寺內)에 있는 한국인 발레들과 함께 날뛰는 자와 통모하고 협력하여 비석을 때려 두 동강으로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목은 한을 씻었다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곧바로 항복하고 물러갈 징조를 나타낸 것일 뿐, 진실로 우리들에게 무슨 손상을 끼쳤겠는가?"

1943년에 일본인들과 그 앞잡이들이 비석을 파손했고 2년 뒤 일본은 항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2년 뒤 깨진 비를 대신하여 새로운 비를 세운 것이니 사명당의 몸소 보인 대기대응의 법력과 애국충절은 세월과 상관없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흥제암 부도발 위쪽 능선에 사명당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소담스러운 석종형 부도에는 오직 중생의 도탄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스님의 가풍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큰절과 용담선원 원당암과 흥제암이 한 눈에 보이는 언덕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명당의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해인사 흥제암 뒤 언덕에 자리잡은 사명당 부도

1544~1610) 스님은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무상의 그림자를 타파라고 이름니다. 그리고 각자 인연을 따라 흩어져 공부 하라고 한 뒤 홀로 참선에 몰두합니다. 선실(禪室)에 들어가 가부좌를 맺고 묵언으로 정진하는 그 모습이 흠으로 빛은 인형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자 출가를 결심합니다. 김전 왕악산 직지사로부터 신묵(信默) 스님의 제자가 된 사명당은 <경덕전 등록>을 열람하다가 깊은 종지를 깨닫는 기연을 만납니다. 1561년

(淸虛休靜 1520~1604)의 입실제자가 됩니다.

스승의 도량에서 3년 동안 각고 정진 한 사명당은 금강산 보덕암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3년간 정진하

간략한 설명이지만, 사명당의 부도와 비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내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석장비는 <홍길

사명당의 대기대응과 구국충절 소담한 부도에 응축 석장비 일본인이 파손 환경 스님 원력으로 다시 세워

(명종16)에 서울로 올라와 봉은사에서 열린 승가에 응하여 선과(禪科)에 합격한 스님은 당대의 쟁쟁한 유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고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의 명산을 두루 순례했습니다. 그렇게 멈춤이 없던 구도자의 행로는 시간과 출세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구국의 횃불을 든 사명당의 활약상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전)으로 유명한 허균(許筠 1569~1618)이 지었습니다. 비문의 뒷부분에 보면 허균 자신이 비문을 지은 인연에 대해 "비록 유가에 속하는 무리지만, 서로 행님 아우라고 호칭하는 친한 사이로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적고 있으니 두 분의 친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균이 글이 '누구보다 스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당이 왜란을 맞아 승군을 지휘하여 구국의 선봉에 선 일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여동과도 같은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행만 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중생



흥제암 부도발 전경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8



수험도와 엔노 오즈노



일본 특유의 종교인 수험도는 대자연 속에서 한 무리를 이루며 우주의 기운을 받아 초월적 힘을 체득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수험도가 최근 일본 대중들에게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수험도는 일종의 산악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 유교, 도교를 비롯한 외래 신앙과 전통적인 일본 신앙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출가 교단의 형태보다는 재가자로 구성된 수행집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수험도의 연원은 8세기 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림에 들어가 경문이나 다라니를 외어 기력을 증진시키거나 주술 종교적인 활동을 한 재가

로의 삼척과 가로의 일획을 범신·보신·화신의 삼위일체로 풀이하고, 복자의 인(人)과 견(犬)의 두 자를 합쳐 무명법성불이(無明法性不二)를 뜻한다고 한다. 이 두 자에 의해 이들은 성불가능한 대일여래의 성품을 지녔다고 보고 있다.

수험도는 전형적인 일본의 신불합합 신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불교의 여래·보살·명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신도가 행하는 제사나 축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야마부시는 복장의 착용이 특

이하다. 삼베 옷 위에 가사를 걸쳐 입고 머리에는 두건을 두르고 허리에는 소라, 다리에는

각반을 차는 등 12가지 도구를 몸에 걸친다. 이 도구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야마부시는 석장을 짓고 짚신을 신은 채 바위산을 자유자재로 건너뛰며, 위험을 무릅쓰고 천애의 암벽등반을 하기도 한다. 전국의 영산으로 알려진 곳, 특히 나라현의 요시노산, 와카야마현의 쿠마노산, 이시카와현의 하쿠산, 후쿠오카의 히코산 등은 이들의 주무대이다. 산을 우주 전체로 보고 밀교의 만다라에 비유하기도 하며, 부처님이 범화경을 설한 영축산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음에 계속>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전형적인 일본 '신불합합' 신앙 자연 귀소본능 불교적 심성 부활

자성(自省)과 쇄신(刷新)의 나눔결사

제1회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일시 | 불기 2555(2011), 4. 23(토) 오후 6:50 ~ 4. 24(일) 오전 4:00
장소 | 서울 조계사, 고창 선운사, 부산 흥법사 외

108배 10,800원 / 1500배 15,000원 / 3000배 30,000원 / 자유기금
후원계좌 | 국민 006001-04-229831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당일현장모금헌행

문의 | 02-723-5101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방송, RY, 불교TV
후원 | 조계사, 마곡사, 선운사, 중앙승가대, 부산 전법도량, 다음카페 수미산, 중무원조합 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얼굴에 밝은 희망의 미소가 깃들기를 발원하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실천하는
거룩한 나눔결사에 따뜻한 보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